

전남 동부권發 무소속 돌풍 어디로

박지원, 초계파 광폭 행보

민주 경선 파행에 광양·순천 등 유력후보 탈당

단체장·지방의원 연대 꿈틀... 타지역 확산 주목

전남 동부권의 무소속 바람이 심상치 않다.

동부권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탈당을 감행,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가 하면 무소속 단체장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등 무소속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같이 전남 동부권이 무소속 바람의 진원지가 되면서 광주와 전남 중·서부지역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서종식 후보와 일찌감치 무소속을 선언한 이성용 현 시장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광양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한 정현복·김재휴 후보가 11일 경선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탈당에는 김

종호 기초의원 경선 후보도 동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할 경선이 당이 만든 규정마저 무시하고 특정후보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진행됐다”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역정서를 무시한 민주당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재휴 후보와 함께 “지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성용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과 함께 무소속 최대 강세지역인 순천에서도 경선 탈락 후보들의 부인과 여동생이 무소속 광역의원 후

한,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 공천 박탈

후보 내지 않기로

한나라당은 11일 동생의 금품살포 혐의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공천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정병국 사무총장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지만 (연루자가) 후보자의 동생인데다 우리 진영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공천을 박탈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천 박탈 과정을 밟은 뒤

또다시 공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제주지사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면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천 박탈 발표를 하게 됐고, 내일 최고위원회 추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어제 (현 후보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일단락됐지만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천의) 원칙을 무너트리면 안 된다는 점에서 무공천이 제주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로 나서면서 무소속인 노관규 현 시장과 연대를 공고히 했다.

우선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성을 이유로 중도 하차한 이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여동생인 이영란씨가 무소속 전남도의원 후보(제3 선거구)로 나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박광호 전 순천시의장의 아내인 정문미씨도 남편이 출마한 지역구인 제4 선거구에 무소속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들은 지난 7일 노관규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무소속 바람을 키웠다. 또 이날 노 시장 사무소 개소식에는 김선유·김철운·박계수 등 전현직 시의원 10여명이 참석, 민주당 경선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무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 동부권의 무소속 바람이 거센 이유는 현직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 두 곳 외에도 여수시·고흥군·구례군 등에 전직 단체장을 지낸

막강한 무소속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에는 현 오현섭 시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 김충석 전 시장이 지난 3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조직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무소속 연대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고흥에서도 진중근 전 군수가 박병종 현 군수의 재선을 막기 위해 지난 달 24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구례에서는 서기동 현 군수에 맞서 전경태 전 군수가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 세 번째 리턴매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동부권은 서·중부권보다 민주당 세력이 약한 곳인데 당에서 원칙 없이 경선을 치러 반민주당 정서를 키웠다”며 “무소속 바람이 광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하태민기자 pyj4079@



김영진 의원 출판 기념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오월의 하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지방선거 핫코너

윤난실 “여성 살고싶은 광주 만들겠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는 11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 우선주의에 맞서 평등과 돌봄에 기초한 정치로 성평등한 광주, 여성이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겠다”며 성 평등을 위한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차별시정 평등위원회와 산하 성 평등기구 설치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0%로 상향 조정 ▲성 평등 조례 제정 ▲질 좋은 여성복지 일자리 창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지원 ▲유방암



낮추기 생활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광주지역 성별 임금 격차와 전

문가 중 여성비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 성 평등 지수가 전국 광역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차기 광주시장은 여성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안전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노 “민주당은 허위 정당가입 사과하라”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11일 “민노당 일부 후보들이 민주당에 입당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들의 허위 정당 가입을 당장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이날 “박병기 장흥군수 후보와 목포의 이구인 시의원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해 이중당적으로 출마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당은 “박 후보의 경우 민주당의 실수였음을 인정받아 이중당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후보의 경우 입당한 적도 없는데 민주당이 되레 탈당계를 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전남도당은 “민주당의 경선과 공천과정 등에서 발생했던 온갖 잡음 속에 조작, 허위, 페이퍼당원 논란이 횡횡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민노당 핵심당원들조차 누군가 의뢰 대응된 것”이라며 “이 후보는 2006년 이미 민노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 이 있다”고 밝혔다.

민노 지방선거 출마 후보 27명 확정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11일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 등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27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다음은 후보 명단.

◇광주시장 장원섭 ◇구청장 ▲서구 강기수 ▲북구 정형택 ▲광산구 신종철 ◇광역의원 ▲서구 우승관, 강은미 ▲광산구 성창우, 황차은 ◇기초의원 ▲동구 안병강 ▲서

구 이대행, 이은주, 류정수, 조홍영 ▲남구 이이현 ▲북구 소재섭, 김현성 ▲광산구 국강현, 이갑성, 홍순하, 김선미, 최경미, 김도훈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주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서구 김은아 ▲남구 배진하 ▲북구 최유진 ▲광산구 김은정

나주 무소속 후보 편향 여론조사 고발

나주시장 예비후보인 김대동·이광형·주황득 등 무소속 예비후보 3명은 11일 나주목사내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지역 모 지역신문이 편향된 여론조사를 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신문사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향된 조사로 최근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람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변질시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려를 금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공정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재홍 학동에 선거사무소

손재홍 민주당 광주시의원(동구 제2선거구) 후보는 11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학동 대동빌딩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범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원 및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해 손 후보의 필승을 기원했다.

손 의원은 개소식에서 동구 중심의 민주·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허문수 선거사무실 개소

허문수 민주당 광주시의원(광산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5시 광산구 월곡동 운남산부인과 4층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허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창조적인 광주 건설과 광산구 주민들이 파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밀착형 생활의정을 구현해 동네마다, 거리마다 광산구가 확 살아나는 감동적인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할 계획이다.

허 후보는 제17, 18대 김동철후보 선대본부장 및 유세단장, 정동영 대통령후보 광산구 선대위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 민원실장을 맡고 있다.



조오섭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조오섭 민주당 광역시의원(북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가정지원 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만13세로 제한되어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만18세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신규 입양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입양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과천시가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위탁 모 사업’도 조려화 할 것을 주장했다.

이수근 순천시장 출마 선언

이수근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장(42)이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1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서민이 주인 되는 참여 자치와 진보정치의 새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을 비롯 무상교육·의료, 녹색 청정도시, 지역순환형 경제도시, 보편적 복지도시, 남북교류에 앞장서는 평화도시 등 정책을 제시했다. 순천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이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 순천시장과 2008년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강인택 치평동에 선거사무소

민주당 강인택 서구 기초의원 나선거구(치평·상무1·광천·유덕)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5시 30분 치평동선거 사무소(상무역 앞 농협 5층)에서 조영택 국회의원과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구의 젊은 일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김장환 “교과별 전용교실 설치하겠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전체 중·고등학교에 교과별 전용교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용교실은 특정과목의 수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접목한 것”이라며 “우선 30학급 이상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과별 전용교실을 설치한 뒤 오는



를 개설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재 “무너진 교권 회복 정책 펴터”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교원단체가 발표한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탑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사태는 모두 237건으로 이중 절반은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이었다”며 “교원들이 마음 편하게 학생들을 가



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 ▲학교

별·교과별 수업장학 컨설팅단 구성 ▲특별승진제 도입 ▲외국교육 확대 ▲장무 부담 해소 등의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광현 선거사무실 개소식

윤광현 광주시교육의원(북구) 예비후보는 11일 광주시 북구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대안 모색에 주력하겠다”면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의 교육 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주요공약으로 ▲공교육 살리기 ▲교육비 부담 최소화



정책 구현 ▲북구지역 교육 서비스 강화 등을 담은 3.3 공약을 내놨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재균 국회의원,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 임내현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공동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권일·박진표·정철현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왼쪽)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당선이후 첫 만남을 갖고 서로 끌어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변인에 조영택·전현희 의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재선의 박기춘 의원을 수석부대표로, 조선인 조영택(왼쪽)·전현희(오른쪽) 의원을 공동 원내대변인으로 하는 3기 원내부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부대표단은 김우남(총괄기획), 양승조(법무), 김희철(당무), 전혜숙(대외), 홍영표 이찬열 이윤석 이춘석(이상 의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원내대책회



의는 일반 평의원 등 누구라도 참석해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미니 의총 성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